

임신,출산,양육에서의 차별

2. (임신,출산,양육에서의 권리)

장애인은 임신,출산, 양육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임신,출산, 양육에 있어서 지원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 지원에는

차별행위

(인식관련등)

1. 근거없는 유전가능성이나 장애를 이유로 임신, 출산, (양육)의 권리를 부정(및 의심)하는 경우.

2. 혼인 또는 이성교제에 대한 조건으로서 장애인에게 피임, (불임) 낙태를 강요하는 경우

3. 장애를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불임시술 및 낙태를 강요하는 경우

(정보제공 관련)

4. 제공되는 임신,출산,육아에 관련된 모든 정보에 장애유형을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5. 장애인에게 장애유형 및 정도에 맞는 임신,출산,육아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공기관,보육시설)

6. 장애를 가진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정을 지켜볼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는 경우

7.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정책 및 서비스등)

8. 장애인의 임신,출산, 육아와 관련해서 사회보장 및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9. 장애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정책 및 서비스에 장애유형 및 정도에 맞는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10. 장애를 가진 부모의 아동에 대한 보육정책 및 서비스에 장애유형 및 정도에 맞는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입양관련)

11.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을 가진 부모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되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

장애인의 임신,출산, 양육에 필요한 보조기기 및 도구 제작 및 개발에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취업 과정에서의 중증 여성장애인의 차별사례> 김미송

#1. 교육과정

부모가 장애아를 두었을 때 교육에 대한 태도가 여성장애아와 남성장애아가 틀리다.

초등학교때 엄마가 계속 업고 학교에 데려가고 데려왔다. 엄마는 내가 초등학교까지만 다니길 원했다. 한글만 깨쳐주려고. 그런데 내가 원해서 계속 다니게 되었다. 중학교를 특수학교로 가겠다고 할 때에 엄마하고 실갱이가 있었다. 나는 “가겠다” 엄마는 “혼자 아무 것도 못하는게 어딜가냐”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일반학교를 다녔는데 일반학교 다닐 때는 항상 내 친한 친구가 짝이어서 항상 그 애가 활동보조인 비슷하게 날 많이 도와주었다. 시험시간이 나한테 굉장히 짧았다. 내 짝꿍은 30분에 문제를 다 풀어놓고 선생님 허락 하에 그때부터 내가 부르는 답을 써주었다.

초, 중, 고등학교때 화장실 가는 시간이 획일적으로 정해져있는데 그 시간이 항상 부족했다. 특히 생리를 하게 될 경우 보통 20분 정도가 소요된다.

단지 일반학교에 다니면 부모님도 힘들고 학교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많이 힘드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쉬운 특수학교를 선택한 것 뿐이었는데 오히려 나는 특수학교에 가서 고생을 더 했다. 기숙사에 보모가 있는 학교도 있다던데, 내가 다닌 학교는 보모가 없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은 서로서로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행동은 느리지, 아침엔 바쁘지 중증뇌성마비 경우는 아침 식사시간이 8시인데 8시에 맞춰가기 위해서 기숙사 원래 기상시간은 6시30분인데 한시간 먼저 일어나도 빠듯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옷 입는 시간이 다르고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이 옷 입는 시간이 다르다.

특수학교에서도 장애차별이 있다. 소아마비 장애인들이 뇌성마비 장애인들을 차별했다. 선생님이 먼저 그러니까 아이들도 덩달아 그런다. 선생님이 언어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발표할 기회를 아예 안준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뇌성마비 장애인을 소아마비나 다른 장애인들보다 좀 못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2. 고3때 진로준비

#3. 직업전문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립재활원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그때만해도 내 장애로는 거기서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다. 거기에 있는게 대부분 양재나 전자조립, 목공, 컴퓨터교육이었다. 그때가 93년도였다. 93년도만 해도 컴퓨터보급이 많이 없어서 컴퓨터교육은 고급교육(경증장애인 위주)에 가까웠다.

#4. 취업과정

무궁화전자, 수원에 장애인만 상대로 하는 전자회사가 있다. 거기에는 기숙사가 있어서 회사 다니기가 좋아서 가려고 전화로 문의를 해봤는데 내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깐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 장애상태에 남성이면 박스라도 들고 힘쓰는 일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할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 전기조립하는 일이기 때문에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할 수가 없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거나 하고 싶었다.

#5. 노동시장 (비행)

지금은 컴퓨터 교육을 아무나 받을 수 있지만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종종 뇌성마비 여성인 경우에는 교육은 받아도 취업을 할 수가 없다. 어느 직업전문학교에서 정보처리과정을 2년동안 배우고 또 다른 직업전문학교에서 3년 동안 배우고 또 복지관에서 하는 워드인을 2년 정도 배우고 2~3년동안 취업을 못하다가 했는데,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 월급도 많이 밀리고, 취직한지 1년이 지난 지금은 회사를 그만둔 상태이다.

#6. 노동시장

한 친구는 직업훈련원에서 4~5년 컴퓨터를 배우고 공단소개로 어느 사무실에 컴퓨터 편집일로 취업을 했는데 일을 하다가보니까 사무실 사람들이 사무실에 있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사무실에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사무직에 있다가 그 회사의 생산직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처음부터 생산직 사람들과 직급이 같은 상태에서 사무실에서 일했었다. 밑에서 생산직 아줌마들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는게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사무실에 눈치보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생산직에서 일하는게 더 낫다. 사무실에서 컴퓨터 편집일을 5~6개월 하다가 생산직으로 내려갔고 그 직장에서 3년 정도 일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서 그만뒀다. 사무실에서 생산직으로 발령을 낸 것은 일반적인 경우 회사를 그만두라는 의미인데, 이 친구는 여성이고 뇌성마비 장애인이라 다른 곳에 취직할 곳이 마땅치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생산직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생산직으로 내려온게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 현재 직장을 그만둔지 3개월 된 상태에서 직업을 찾고 있다.

어